곡성군, 박대업 국악인 '제69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전라남도 무형유산 곡성죽동농악 보유자 박대업 국악인… 곡성군 2년 연속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쾌거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무안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제69회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곡성죽동농악 보유자 박대업 국악인이 문화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곡성군은 2024년 김탁환 작가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라남도 문화상은 1956년 제정돼 올해로 69회째를 맞는 지역 문화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박대업 국악인은 국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통 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헌신하며,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후진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문화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남도 국악의 맥을 잇는 연주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곡성군을 대표하는 국악인으로서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전라남도 무형유산 곡성죽동농악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1990년에는 곡성죽동농악보존회의 모태가 되는 곡성민속마을보존회를 결성해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농악전승학교 찾아가는 공연',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속한마당', '곡성죽동농악 공개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곡성의 전통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박대업 국악인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준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박대업 국악인의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곡성군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제69회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곡성군 박대업 국악인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받고 있다.

광주은행, 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성금 2천만원 전달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해 치료비·생계비 등 활용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7일,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조덕선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치료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은 물론,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형사사건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도 쓰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누적 3억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광주은행 임양진 경영지원본부장은 "범죄 피해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금융의 역할을 넘어 이웃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영암 어란 최태근 장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8대째 전통 제조기술 이어… 바람·햇볕 자연 건조로 고소한 감칠맛 일품

영암군 군서면에서 8대째 전통 어란 제조기술을 이어온 최태근 장인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16호'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 제조·가공 분야에서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킨 장인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최 명인은 숭어의 알을 소금에 절여 천천히 건조·숙성하는 전통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어란을 생산·판매해 왔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 보전·계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산식품명인에 올랐다.

여기에 영암군의 가치 알리기, 전통 제조기술 명맥 잇기, 명인 발굴 등 노력이 더해지며 영암 어란은 꾸준히 전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암 어란은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되던 귀한 음식으로 짭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바람과 햇볕이 빚어낸 자연 건조 숙성 과정에서 살아나는 특유의 바다 향으로 오랜 세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온 영암 대표 향토 음식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한 유명 미슐랭 셰프가 최 명인의 영암 어란을 재료로 만든 특별한 파스타를 유튜브에 선보여 조회수 169만 회를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암군은 이번 수산식품명인 배출을 계기로 지역 전통식품과 장인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고, 영암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이 수산식품명인 지정으로 인정한 영암 어란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영암몰에도 입점돼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함평군, 기업·단체 기부 잇따라… 연말 나눔 온기 확산

전남 함평군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연말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은 19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고빛건설(대표 이석재)은 지난 10일 어르신을 위해 120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해당 물품은 관내 경로당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일상에 위로와 온기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성리 구룡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더메이커스(대표 고유경)는 18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제작한 도마 27개를 기부했다. 더메이커스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공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마련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산타 버스가 크리스마스를 싣고 달려요"

강진군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 성공

지난 18일 100여 명의 산타들이 강진읍 거리를 행진하며 나눔의 온기로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군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 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산타행사, 중앙로(뚜레쥬르~카페베네) 퍼레이드까지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강진읍을 환하게 물들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산타버스가 도심을 누비는 '이동형 축제'로 운영돼 어린이들과 군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출정식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산타원정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행사 현장에서는 강진9호 신규 아너(이용기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가입식도 함께 진행돼,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산타원정대는 출정식 이후 산타버스에 올라 중앙초등학교로 이동, 아이들에게 "올해도 강진에 산타가 왔다"는 설렘을 전했다.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과 캐럴이 어우러진 산타행사가 진행됐고, 이후 산타원정대는 중앙로 구간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며 상가와 거리를 지나는 군민들에게도 연말의 즐거움을 나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산타버스는 강진군청 광장과 강진터미널에 포토존 형태로 운영돼 군민 누구나 사진을 남기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산타원정대 시즌3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오는 24일까지,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11개 초등학교와 2개 아동시설 등 총 13개소를 직접 찾아 1,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과 따뜻한 응원을 전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농협 보성군지부 "농업가치 확산 & 농심천심운동"실천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지부장 박정학)는 11일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농업 관계자들과 함께 "농심천심"운동을 실천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쌀 나눔은 농업인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농심천심(農心天心)'이라는 가치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농협 보성군지부는 20kg 쌀 30포(200만원 상당)를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해 지역장애인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원하게 되었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이라는 의미로 우리 국민 모두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농촌 가치를 다시 깨닫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다. 박정학 지부장은 행사에서 "쌀은 농업의 뿌리이자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라며 쌀 육성과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 김승진 관장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농협 보성군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원 연계, 재가복지, 지역사회 나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